

전북대, '이공계 동량 키우기' 성과

오디세우스 5기 49명 수료 1년 간 대학 스타교수-고교생 멘토링 11개 연구과제 수행... 성과 발표

전북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가 이공계에 재능이 있는 고교생들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진행한 '제5기 오디세우스 프로젝트'가 지난 1년간의 연구 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14일 성과 발표 및 수료식을 가졌다.

이 과정은 이공학 분야 스타 교수 11명에게 50여 명의 고교생을 배정, 1년 동안 각 분야 연구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하는 멘토-멘트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우수 고교생들의 이공계 진학을 장려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 특히 지역대학과 교육청, 고교 간의

새로운 인력 양성 협력 모델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디세우스 5기로 활동한 49명의 학생들이 반도체와 분자생물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고분자·나노공학, 컴퓨터, 항공우주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 농생명 등 11개 분야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를 모아 특별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수료의 의미를 더했다.

연구결과 발표회 이후에는 이남호 총장과 김동원 센터장과 수료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활동을 격려하는 수료식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수료식 이후에는 참여 학

생들의 미래비전 설계를 위해 17일부터 31일까지 스웨덴왕립공과대학교를 비롯한 북유럽의 글로벌 기업 및 명문 대학으로의 현장 견학이 추진된다.

김동원 센터장을 비롯한 멘토 교수진은 막스프랑크연구소와 프라운호퍼 연구소, 뮌헨공대, 베를린공대, 헬싱키 대학, 알토대학, KISTA SCIENCE PARK 등 해외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선진 연구실 체험과 함께 저명 연구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할 계획이다.

김동원 센터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를 통해 이공계 실용성을 경험했지만 이것만으로 희망 전공

을 정하기엔 현실의 벽이 높다"며 "그러나 인류사회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몸을 던져 일하는 세계적 과학자들을 만나며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정신을 갖고 뜨거운 가슴을 채워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남호 총장은 "우수 고교생 연구 동아리 오디세우스 프로그램은 대학과 교육청, 학교 간 협력을 통해 이공계 영재 양성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탐색 기회는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동기와 기업가 정신을 배워 지역발전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학 위해 재산 기부' 어머님 뜻 오래 기억되길”

곽봉덕 여사 작고 전 약속한 3억1000만원, 가족들이 전북대에 기탁

“생전 후학양성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하고 싶은 일을 하셨다며 좋아하셨는데...”

14일 곽봉덕 여사의 가족들이 전북대 이남호 총장을 찾았다. 지난 5월 작고한 모친의 생전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남호 총장에게 답답하게 어머니의 유지인 '군자부 호행기덕(君子富好行其德 : 군자가 부유하면 덕을 실천하기를 즐긴다, 사기 '화식열전'의 뜻을 전하는 순간에도 자녀들의 말끝은 이내 흐려진다.

장수 출신인 곽 여사는 평소 정도로써 자녀들에게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사와 공부는 미루면 안 된다고 늘 당부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꼭 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는 작고하기 얼마 전 3억 1,000만원을 전북대에 기탁하기로 했다. 자녀들과 지인으로부터 개교 70주년을 맞은 전북대가 눈부신 발전과 함께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터.

평소 자신의 신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곽 여사는 대학에 기탁 의사를 밝혀왔고 약정서 작성까지 마쳤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은 5월, 꼭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14일 곽봉덕 여사의 가족들이 전북대 이남호 총장을 찾아 여사가 작고하기 얼마 전 장학금 등으로 약속한 3억1000만원을 전북대에 기탁했다.

다. 평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베풀고자 했던 고인의 뜻대로 2억원 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생활비로 매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1억원은 학생들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 강의실을 만드는 데 쓰기로 했고 1,000만원은 전북대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추진하고 있는 '현와·현수 캠페인'에 참여해 모친의 이름이 대학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또한 고인은 부군의 호를 후학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학생들에게 주어질 장학금을 '송은(松隱) 장학금'으로 명명하고 추후 구축된 스마트 강의실 역시 '송은(松隱) 강의실'로 이름 붙이기로 했다.

장남인 인병혁씨는 “당신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고 많은 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어머님이 남기신 고귀한 뜻

이 오래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고 장학금을 받는 후학들도 받은 것을 또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호 총장은 “고인의 인성이 담긴 고귀한 기금이기에 더욱 뜻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아름다운 마음이 대학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해은 기자

‘전공체험·학과탐방·입학전형설명회’

전북대, 오늘~내일 1만명 대상

전북대학교가 진로 탐색과 학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과 체험형 입시설명회를 실시한다.

17일과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2017년 전공체험·학과탐방·입학전형설명회'에 전북대는 도내·외 고교생 및 교사 등 1만여명을 대학으로 초청, 학과소개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롯한 입시상담, 대학 교직원(교수 및 입시담당관)과 고교 교사 간 정보교류 및 토론 등 다양한 정보제공의 자리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대 모든 학부(과)가 참여해 학과별로 부스를 만들어 고교생들이 학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우석대, 전주대, 군산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조선대 등도 고교생들의 대학체험 행사에 참여하기로 해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입학사정관들과 함께 '1일 위촉입학사정관'으로 참여해 입학전형에 관한 상담을 비롯해 고교생들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와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교육행정 141명(일반 130명, 장애 7명, 저소득층 4명), 전산 5명, 사서 4명, 공업(일반기계-일반 8명, 공업(일반전기-일반) 9명, 시설(건축-일반) 11명, 공업(일반기계-고

졸) 3명, 공업(일반전기-고졸) 3명, 시설(건축-고졸) 3명, 식품위생 7명, 운전 34명(일반 29명, 보충형 5명) 등 총 228명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7일~19일 면접시험 관련 서류를 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면접시험은 내달 3일에 실시하고 1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노인복지시설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4일 전주시로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는 꽃밭정이, 덕진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시설 현장활동에 나섰다.

이날 의원들은 시설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지난 5월 전주시의 노인

복지관 감사 지적 사항 등을 재점검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주문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과 건강증진사업, 평생교육사업 등 복지관 프로그램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교육 회복은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수,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